

지속가능한 지자체 국제협력사업 수요 분석

이택구
대전광역시 기획조정실

Analysis of Demands on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 of Regional Governments

Taek-Ku Lee
Office for Planning and Cooperation, Daejeon Metropolitan City

요 약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고, 민관협력 기반의 국제교류협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혁신거점으로서 과학단지 조성 사업의 수요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개발도상국 도시를 대상으로 i)국제교류협력에 대한 주요 관심분야와 기대효과, ii)주요 사업에 대한 선호도, iii)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수요 등을 파악하고, iv)세부사업들 간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핵심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파악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개도국 도시는 산업 및 경제 분야의 발전을 위해 교류협력 사업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인프라 개발 및 선진시스템 전수를 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역개발을 위한 개발협력 사업으로써 과학단지 개발에 관한 요구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개도국 도시는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개발과 산업발전을 위한 플랫폼 구축으로서 과학단지를 개발하고,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선진 도시의 발전경험을 습득하기 원하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었다.

주제어 :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개발협력, 네트워크분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mand for the science park development as a regional innovation hub to strengthen the internationalization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and to promote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based on public - private partnerships. For this, i)the main areas of interest and expectation for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ii)preference for major projects, and iii)demand for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were identified, and it was figured out iv)what the core program is for cities of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network analysis using the UCINET program.

Through these analysis, it was found that cities in developing countries wanted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for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and economic sectors. Especially, they wanted to develop industrial infrastructures and transfer advanced systems to foster regional strategic industries. In addition, the demand for the development of science park as a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 was found to be significant. Therefore it could be inferred that cities in developing countries want to develop a science park as a platform for regional development and industrial development, and to acquire development experience of advanced cities through continuous exchange and cooperation.

Key Words : Regional government, International exchange, Development Cooperation, Network Analysis

*Corresponding Author : Taek-Ku Lee (taekkulee@korea.kr)

Received March 6, 2018

Revised March 30, 2018

Accepted April 20, 2018

Published April 28, 2018

1. 서론

1990년대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 세계화의 영향으로 지역 차원의 국제교류나 협력 사업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자치단체 중심의 국제교류협력의 형태는 주로 자매결연(sister relation)이나 우호교류(friendly exchange)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규모는 2014년 기준, 국내 16개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총 73개국, 1,089개 도시, 1,394건이나 되고 있다[1]. 최근에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훈련, 정책경험 전수, 시스템 전수사업 등으로 확대되면서 대개도국 대상 사업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시행되고 있는 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교류, 인력교류, 상호방문 등 대부분 기초적 수준의 교류활동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국제교류는 지역의 국제화에 기여했다고 평가되나, 지역의 국제화 역량 강화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등 실질적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는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따라 바뀌는 단기적인 국제교류 전략, 전문 인력의 부족, 제도적 체계의 미비 등과 맞물려 지속성을 갖는데 한계를 지녀왔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지자체는 지역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에 실질적인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민간 차원의 국제교류협력을 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교류나 방문에 그치는 것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상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협력 사업모델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도모하고, 민간부문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플랫폼 기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고, 민관협력 기반의 국제교류협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의 지역산업 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낸 사업 모델인 지역혁신거점 구축(과학단지 조성)사업의 수요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개도국 도시를 대상으로 i)국제교류협력에 대한 주요 관심분야와 기대효과, ii)주요 사업에 대한 선호도, iii)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수요 등을 파악하고, iv)세부 사업들 간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핵심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파악해 보고자 한다.

2. 지자체 국제교류협력

2.1 국제교류협력의 개념 및 필요성

국제교류는 인종이나 민족, 종교, 언어 등의 차이를 초월하여 개인, 집단, 기관, 국가 등 다양한 주체들이 각각의 우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이익 도모 등을 목적으로 상호 간에 추진하는 협력관계를 말한다[2].

지방자치체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지방의 역할 강화에 대한 요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과거에 비해 글로벌 경쟁이 보다 치열해지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3].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한 국가의 경쟁력은 그 국가를 구성하는 지역과 도시에 의해 좌우되며, 국가 중심의 경쟁 체제에서 지역차원으로 점차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시대에서는 지역간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교류가 증가하고 있어 지역의 국제 교류 확대와 경쟁력 강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과거에는 외국과의 관계에 관한 것은 대부분 중앙정부의 단일 외교창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나,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창구를 통해 해외 상대기관이나 지역과 직접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사례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2], 더 나아가 민간 기관 및 시민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4]. 따라서 지방은 지역 내부의 경제발전을 통해 경쟁력을 가져야 하고, 능동적으로 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관계를 맺어야 한다[5]. 또한, 지방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중앙정부 의존적 태도에서 벗어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기업이나 민간 기관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활동영역을 보다 확대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특히, 개도국의 도시 및 지역과의 교류를 확대하는 것은 지역의 글로벌 영역을 확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역 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민간부문의 국제교류 확대에 기여함으로써 해외 시장개척을 통한 지역의 경제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 간의 교류 및 협력관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간의 교류협력을 토대로 민간부문이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민관 협력 기반의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2.2 국제교류협력의 유형과 현황

지자체의 국제교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으나, 대체로 자매결연(sisterhood relation)과 우호교류(friendly exchange)의 형태로 인적교류를 비롯, 정보, 문화, 체육, 경제 등의 분야에서 추진되는 경향을 보인다 [1,6]. 최근에는 국제기구 참여를 통한 공동발전, 환경보호, 사회개발, 개발원조 등에 대한 국제협력 활동을 확대하는 사례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7]. 2014년 기준 지자체가 수행하고 있는 국제교류는 총 73개국 1,083개 도시, 1,394건에 달하고 있다[1].

이러한 지자체의 국제교류는 크게 4가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첫째는 국제협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 직원 및 주민의 국제교류협력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제흐름과 국제기준에 대한 이해와 의식을 개혁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로, 행정선진화를 위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발전된 선진행정 및 제도, 우수사례 등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자체역량을 강화하고,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국제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셋째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외국 기업 및 자본 유치, 활동 여건 마련, 지역 기업 및 기관의 해외진출 고도화 마련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넷째로 공동의 협력 사업을 통해 환경, 보건, 안전 등 국제적 관심 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함으로써 지방차원의 외교를 통해 국가 외교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2].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내부적 역량구축 및 국제교류 추진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모델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부분적으로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이 현재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류에는 몇 가지 한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6,8,9].

-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여 및 지자체의 자율성 부족
- 국제교류에 대한 인식 부족 및 교류 권역의 편중
- 국제교류의 장기 비전 및 전략의 부족
- 이벤트성 행사 개최 및 단기적 목표 중심 국제교류
- 국제교류를 위한 전문 인력의 부족 및 자치단체장 등 특정인사 중심의 국제교류
- 민간부문과의 연계성 부족 및 민간부문의 참여 부족

- 법적, 제도적 지원체계 미비
- 지역 개발 및 경제 분야 교류 미흡

2.3 지자체 국제교류협력사업의 조건

국제화의 확산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적 역할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취지가 지방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2], 지자체는 지역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응방안이 내발적 발전 [10-13]에만 관심을 두지 않고, 환경과 문화, 경제 등 다방면에 걸쳐 국제적인 활동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교류협력을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상생발전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 국제교류협력 사업은 사업추진을 통해 상호이익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필요가 있다.

먼저, 형식적이고 친선위주의 교류에서 탈피하여 지속적으로 상호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교류협력은 외국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 인력의 확충 등 역량을 강화하여야 하고, 해당 지자체 및 대상지역의 현실(상황)에 부합하는 전략을 개발하는 등 지역기반의 전문적이고 특성화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2].

이와 같이 장기적이고 전략적 관점에서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되 국민 협력을 통해 계획의 수립에서부터 사업의 시행, 성과의 창출, 그리고 민간부문의 교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3. 지자체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플랫폼

지자체의 국제교류를 위한 사업은 이제 형식적이고 친선위주의 교류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상호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협력 사업은 해당 지자체의 지역발전 및 민간부문의 역량강화 뿐만 아니라 개도국을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의 기업, 대학,

연구소 등 민간부문의 해외진출 및 시장개척의 초석을 마련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도국을 대상으로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혁신과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도시 인프라 및 시스템으로서 과학단지(science & technology park, STP)의 개발을 지원하고, 운영노하우를 전수하여 대상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해당 지자체의 민간부문 참여를 유도하여 해외진출을 도모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개도국 입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선진 국가 및 지역에 비해 지역혁신을 통한 지역발전에 요구되는 개발전략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이를 실행할 인적 자본의 절대적 부족하며, 물리적 인프라 및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여 글로벌 무한 경쟁시대에 지역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14]. 따라서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개도국 개발정책 관계자들에게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을 통한 지역개발 전략을 전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인프라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대상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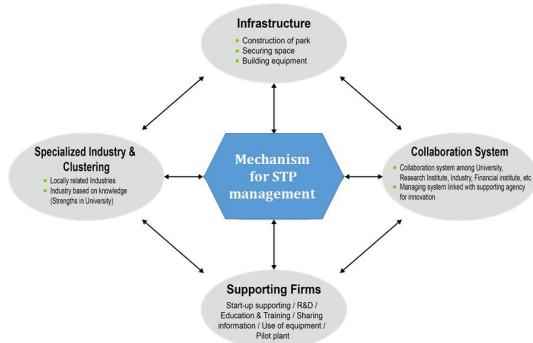


Fig. 1. Mechanism for STP management (source: Kwon and Byeon, 2003)

과학단지는 연구와 개발을 위한 시설들과 과학 및 기술 중심의 기업들이 인근에 입지하도록 계획된 토지 및 시설 단지를 의미하며[15], 지역의 산·학·연·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관련 조직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기술혁신지원체제를 구축하여 기업의 기술혁신과 신기술 창업을 촉진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달성하고자 하는 기술단지이자 기술혁신 조직체라 할 수 있다[13]. 이러한 과학단지는 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조성되는데, Castells과 Hall(1994)은 1)지역개발(regional development), 2)시너지 효과 창출(synergy), 3)산업부흥(reindustrialisation)

을 주요한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15], Shearmur와 Doloreux(2000)는 경제개발(economic development), 2) 기술이전(transfer of technology), 3)지역의 이익(local benefit)을 개발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17].

따라서, 과학단지 개발은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의 혁신의 거점(구심점)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의 지식기반 산업의 육성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개발 전략이라 하겠다.

때문에 개도국의 과학단지 개발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이고 특성화된 국제교류협력을 추진함으로써 국제교류 대상지역의 지역개발 및 산업발전을 도모하며, 해당 지자체에 있어서도 지역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시장 개척(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함으로써 지자체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모델로 적합하다고 하겠다.

4. 지자체 국제교류협력 수요 분석

개도국을 대상으로 지자체 간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장기적이고 특성화된 협력사업 모델 발굴이 요구되며,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과학단지 개발 지원은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가능케 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사업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개도국의 정책관계자를 대상으로 지자체 간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국제교류협력을 위해 요구되는 사업 부문은 무엇인지 파악해 보고, 이에 대해 세부적으로 요구되는 사업들은 무엇인지 파악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개도국 지자체들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교류협력 플랫폼으로서 과학단지 개발 요구 및 요구되는 기능을 파악해 봄으로써 지자체 장기적이고 특성화된 국제교류협력 사업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4.1 조사개요 및 분석방법

개도국을 대상으로 지자체 간의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해외 수요와 주요 콘텐츠를 파악하기 위해 UNESCO와 세계과학도시연합(WTA) 간의 협력사업의 하나인 국제공동워크숍(International Training Workshop)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19개 개도국 도시 및 기관의 대표들을 대상(미주지역 4개국 5개 도시, 동아시아지역 5개국 8개 도시, 중동·아프리카지역 16개국 21개 도시 및 정부기관, 유럽지역 2개국 2개 도시, 태평양지역 6개국 11

개 도시: 총 19개국 47개 도시 및 기관)으로 국제교류협력사업의 추진 의향 및 협력의 범위, 주요사업콘텐츠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심층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7년 9월 10일에서 9월 13일 사이에 실시하였으며, 조사는 APCS(아태도시정상회의), 세계혁신포럼, 국제공동워크숍에 참석한 참석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양식을 배포 및 회수하였고, 17개국 38개 도시 및 기관으로부터 38개의 유효한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설문방식은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 중복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에 대한 설문결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각 항목별 빈도 분석과 함께 UCINET 6.647 버전[18]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핵심사업과 관련 사업들 간의 연계성을 찾아보았다. 이와 같이 개도국의 도시들이 희망하는 교류협력의 유형과 협력의 범위에 대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4.2 개도국 국제교류협력 요구 분야

개발도상국 도시들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희망하는 국제교류 및 협력의 주요한 분야로는 ‘산업 및 경제’(26%) 부문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기대하는 바도 지역개발(38%) 및 산업발전(28%)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크게 조사되었다. Fig.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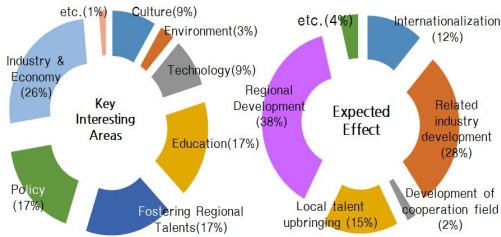


Fig. 2. Interesting areas and expected effects for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특히, 개도국의 도시 정부는 선진도시와의 국제교류 및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에 파급효과를 가져오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교육훈련, 선진시스템 전수, 시설개발 지원 등에 관한 교류 및 협력사업 추진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단순히 빈도분석을 통해 분석하는 것에 그칠 경우, 가장 핵심(Core)가 되는 사업은 무엇이고, 이를 기반으로 연계할 사업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사

업모델을 찾는 데 한계를 갖는다. 때문에 조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면 Fig. 4와 같은 관계를 파악해 볼 수 있다. 각각의 노드를 연결하는 선의 강도와 개수, 중심성을 통해 ‘선진시스템 전수’와 ‘교육훈련프로그램 제공’에 관한 사업이 핵심 사업임을 파악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사업을 중심으로 관련 교류협력 사업을 연계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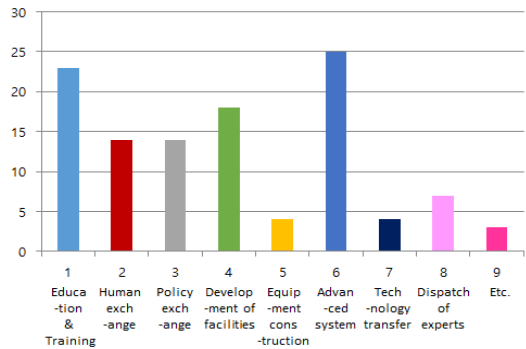


Fig. 3. Demand on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 of regional govern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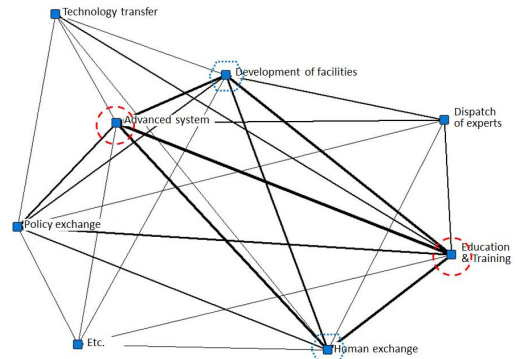


Fig. 4. Network analysis for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4.3 주요 개발협력사업 요구분야

개도국 도시 정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국제교류 및 협력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국제관계를 형성하기 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의 주요한 대상은 ‘교육훈련’와 ‘선진시스템’에 관한 것이었다. 이에 더해 선진 도시와의 국제교류 활동을 넘어 개발협력사업의 요구 및 선호 사업 부문을 파악해 봄으로서 효과적인 개도국 개발협력사업의 모델 및 사업 콘텐츠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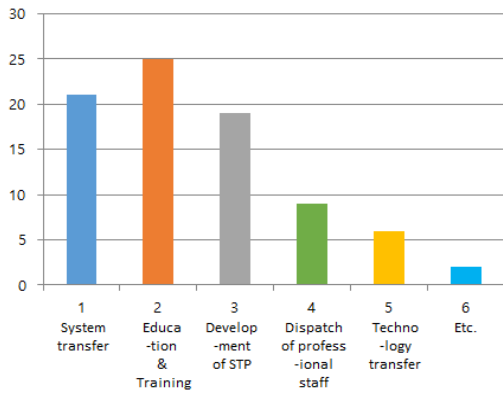


Fig. 5. Demand on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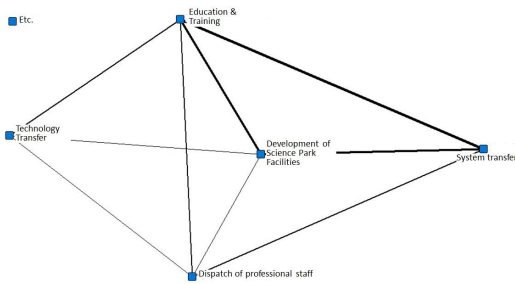


Fig. 6. Network analysi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Fig. 5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조사에 참여한 38개 도시 및 기관의 경우 ‘교육훈련 역량강화’에 관한 개발협력 사업 요구가 가장 높게 형성되고 있으며, ‘시스템 전수’와 ‘과학단지 개발’에 관한 개발협력사업 관련 요구가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에 더해 지자체의 여건과 역량을 볼 때, 선호도가 높은 개발협력 사업을 모두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발협력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핵심 사업을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협력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러한 개발협력사업의 핵심 사업을 파악해 보면 Fig. 6에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 관계망을 통해 선호도가 높은 3가지 사업에 대해 사업의 요구강도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다른 사업들과의 관련성을 기반으로 핵심 사업을 파악해 보면, ‘과학단지 시설 개발 지원’에 관한 협력 사업이 연관성이 가장 높은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과학단지 시설개발을 개발협력 사업으로 요구

하는 개도국의 도시정부를 대상으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개발협력 지원 사업을 통해 요구하는 바를 명확히 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와 성격을 정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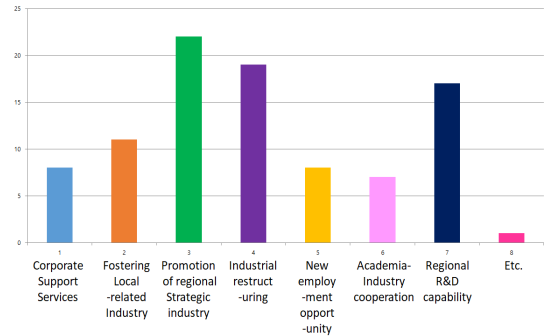


Fig. 7. Expected effect of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 for ST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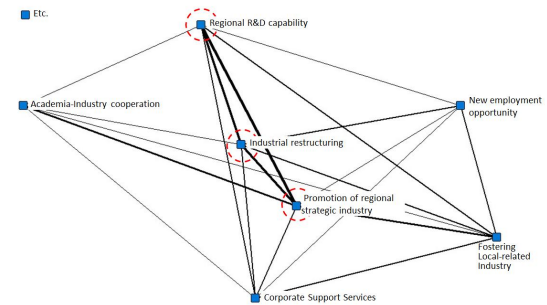


Fig. 8. Network analysis on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 for STP

Fig. 7, 8에서는 개발협력 지원 사업을 통해 ‘과학단지 시설 개발’을 지원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원하고 있는지 파악해 봄으로써 지자체 관점에서 개발협력사업의 주요 사업 내용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조사에 참여한 38개 도시정부 및 기관의 의견을 정리하면, ‘지역전략산업 진흥’에 관한 시설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업 요청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산업 재구조화’, ‘지역R&D역량 강화’ 등에 관한 지원 요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시말해, 개도국 도시에서는 과학단지 개발을 통해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 및 산업의 재구조화, R&D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개발협력사업의 세부 지원 사업 유형에 대한 관련성 및 핵심 사업을 파악해 보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도출한 Fig. 8과 같이 관계 강도 및 빈도를 통해 앞서 선호도가 높게 조사된 3가지 세부 사업에 대한 강도가 마찬가지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하지만, 다른 사업들과의 전체적인 관련성을 분석해 볼 때, ‘지역전략산업 진흥 기반 구축’ 및 ‘산업재구조화(첨단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 요구가 가장 높게 분석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을 중심으로 개발협력 사업을 모델을 설정하고 추진할 때 대상 지역의 지역발전 효과 및 만족도가 높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관련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려는 국내 지자체에 있어서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90년대 이후부터 지역적 차원의 국제화를 위한 활동의 빈도나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사업 프로그램도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개발도상국과의 관계개선 뿐만 아니라 시장개척, 지역 민간부문의 국제적 활동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협력 사업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체가 정착되면서 지역의 국제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대한 요구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며, 지역차원에서 국제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지역의 국제화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에서 국제협력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역차원에서 추진된 개발협력 사업은 대부분 단기 사업 중심으로 추진되어 지속적인 교류협력과 국제화 기반 마련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국제교류 및 협력의 필요함을 인식하는 한편, 개도국 도시와의 국제교류 및 협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주요 사업부문을 파악하고, 플랫폼 사업으로서 과학단지 개발 지원에 관한 요구 사항을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통해 확인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도국 도시들은 국제교류협력을 통해 도시의 산업 및 경제 분야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요한 관심 분야

는 문화, 교육, 기술 등에 대한 분야보다 산업경제(26%) 분야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세부 사업 분야에 있어서도 선진시스템 전수에 대한 요구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어 교류협력을 통한 지역개발의 계기를 마련하기 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도시간 국제협력사업 요구에 있어서도 이러한 의견이 반영되어 시스템 전수(21%), 교육훈련(25%), 과학단지 개발(19%)에 관한 요구가 크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과학단지 개발 지원을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파악해 볼 수 있었다.

셋째,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개도국 도시는 개발협력 사업을 통한 과학단지 개발 지원에 관한 요구가 크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산업육성 및 혁신역량 강화 등을 통해 전략산업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여러 개발도상국의 도시 정부는 지역개발을 도모할 목적으로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을 희망하고 있었다. 또한, 개도국 도시는 개발협력사업을 통해 산업발전을 위한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여 한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 지역의 산업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할 과학단지(혁신인프라) 개발을 통해 개도국 도시들도 선진 도시의 발전경험을 습득하기 원하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는 지역의 국제교류를 촉진하고, 해외 기업 및 기관을 유치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때문에 지자체간의 교류협력 사업을 발굴함에 있어서 단기적인 프로그램 보다는 지속성을 갖는 사업을 발굴하고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도국에 대한 혁신인프라 개발 지원에 관한 협력 사업은 단순히 인프라 개발지원에 그치지 않는 것이 아닌 인력양성 및 교류, 정책 교류 등 지속적인 교류협력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민간부문의 국제교류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국제교류활동을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개도국 도시를 대상으로 협력 사업에 관한 요구와 플랫폼 사업의 필요성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기관 대표를 대상으로 하는 의견조사로 인해 수집한 데이터 규모가 작은 점

은 한계로 지적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추가 조사 및 심층 사례연구 등을 통해 세부사업방식 및 모델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REFERENCES

[1] Y.H. Choi, D.S. Kim, H.W. Lee, & S.Y. Kim. (2005). *A Plan for the Establishment of Gyeonggi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ctivities*, Gyeonggi Research Institute.

[2]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2005). *Manual Book for International Relations*, Seoul.

[3] S. Jeong, (2009). The necessity of local internationalization, the strategy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role of public officials.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http://www.gaok.or.kr/>

[4] K. H. Yang. (2003). *Local Government and Policy Process in Japan*. Seoul :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5] Y. W. Kim. (2005). *The Revitalization of ODA Project by Regional Government*. 2nd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aper Award, KOICA,

[6] Y. S. Youn. (1998). The International Intercourse of a Local Autonomous Entity.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1(2), 203-214.

[7] J. K. Kim. (2014). The Cooperation of Local governments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9(1), 233-267.

[8] J. A. Kim. (2011).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International Exchange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Proceeding of 2011 Fall Conference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241-245.

[9] J. A. Kim. (2011).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International Exchange of Regional governments in Korea*. 2011 Fall Conference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241-245.

[10] H. J. Kang. (2015). *Why Endogenous Development is Attracting Attention*. Jeonbuk Research Institute. http://jeonbuk.go.kr/board/view.jeonbuk?boardId=OPINI ON&menuCd=DOM_000000102003004000&startPage=3&dataSid=1611450/

[11] K. Park. (1999). *Endogenous Development as a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Space and Society*, 11(-), 240-264.

[12] S. Kisa, T. Igarashi & T. Hobo. (2006). *Japanese Local Self-government Today: The Light of Decentralization and the Shadow Centralization*, Konkuk University.

[13] M. J. Lee. (2014). *Cases of Japan's Endogenous Regional Development and Development Policy of Chungnam Province*, Chungnam Research Institute.

[14] B. J. Kang. (2006). *Plan for WTA-UNESCO 5 Years Education Program*, Social Science Institute in Hannam University.

[15] C. Manuel & H. Peter. (1994). *Technopoles of the World: The Making of Twenty-First-Century Industrial Complexes*, Routledge : London

[16] Y. S. Kwon & S. I. Byeon (2003). *Strategies for Enhancing Knowledge-based Industry and Building the Regional Innovation System related to Technopark Evaluation*,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17] R. Shearmu & D. Doloreux. (2000). Science parks: actors or reactors? Canadian science parks in their urban context. *Environment and Planning A* 32(6), 1065-1082.

[18] *Analytic Technologies*. <http://www.analytictech.com/>

이택구(Taek-Ku Lee)

[정회원]



- 2008년 2월 : 영국 셰필드대학교 도시계획학 박사
- 2004년 6월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 2018년 현재 : 대전광역시청 기획조정실장 근무

- 관심분야 : 경로의존성, 지역혁신, 도시재생, 국제협력
- E-mail : taekkulee@korea.kr